

# 분홍, 노랑, 보라, 주황... 어떤 맛이 느껴지나요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맛을 보다

이상명 지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부터 다양한 색들과 접한다. 색은 모든 삶의 영역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일상에서 보게 되는 다양한 사물은 물론 자연 풍광, 건물들도 모두 색이라는 이미지를 매개로 인식된다.

색은 음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과일은 물론 채소, 다채로운 음식은 모두 시각이라는 감각을 통해 알게 된다. 맛과 색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색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디자인이나 콘텐트가 아무리 좋아도 색상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입하지 않는다. 그만큼 색이 지니는 영향력과 의미는 간단치 않다.

음식의 맛을 색과 결부해 풀어낸 책 '맛을 보다'는 맛과 색을 탐색한 책이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세밀하면서도 복잡한 관계를 재미있게 풀어냈다.



저자인 이상명 박사는 이화여대에서 정보디자인을 전공하고 일본여자미술대학에서 색채이론을 전공한 전문가다.

저자는 "인간이 어떠한 상황을 판단할 때 미각, 촉각, 후각, 시각, 청각의 다섯 감각 중에 시각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이 말은 시각정보보다 다른 감각정보보다 우위를 차지하여 우리의 뇌는 시각정보 위주로 상황을 판단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식(食)'이라는 한자어는 사람 '인(人)'과 어질 '양(良)'이 더해진 글자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이롭고 사람이 좋아해서 즐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식(食)'의 기원에 대해 다른 설명을 한다. 하나는 '음식이 제기와 같이 받침이 있는 그릇에 담겨 뚜껑이 덮인 모습'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설을 제기한다. 또 하나는 '곡물의 구수한 냄새에 사람이 모이는 모습'을 형상화했다고도 덧붙인다.

어느 편이든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의 감각이 그것에 자극을 받는다.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는다. 음식의 여러 상태 즉 모양, 질감, 뜨거움의 정도, 분위기 등이 맛의 평가와 느낌에 영향을 주지만 그에 앞서 음식과 관련한 기억이 발동하기도 한다.

우리의 몸과 뇌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다. 맛이나 향, 질감 등을 상기에 감각을 되살린다. 뇌에는 맛에 대해 느꼈던 학습이나 경험의 정보가 축적돼 있기 때문이다. 맛깔스럽게 익은 목은 김치를 보고 직접 먹어보지 않아도 침이 고이는 것은 그런 현상이다.

저자는 시각은 맛을 느끼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한다. 신경인류학자이자 의사인 올리버 색스의 저서 '화성의 인류학자: 뇌신경의사가 만난 일곱 명의 기묘한 환자들'에 나오는 사례를 인용한다.

뇌신경 손상으로 색맹인 환자의 임상 실험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토마토는 검은색으로 보여 원래 알고 있던 맛을 느끼지 못했으며 이전에 알던 색과 너무 다르게 보이는 음식들에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 사제 같은 회색과 지저분한 색들로 보이는 음식들을 눈을 감아야 겨우 삼킬 수 있었다고 했다."

지난 2001년 보르도 대학의 와인 양조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도 이색적이다. 적포도주, 백포도주를 시음 후 감상을 적게 했는데, "레몬, 꿀, 질과 같은 어휘는 화이트와인의 풍미로 자주, 초콜릿, 담배 등과 같은 어휘는 레드와인의 풍미"를 꼽았다.

그런데 적포도주처럼 보이도록 백포도주에 무미 무취 안토시아닌 색소를 넣었다. 피험자들은 인공적으로 만든 가짜 붉은색 와인에 '치커리', '자두', '담배'라는 풍미를 선택했다.

아이들에게 알록달록한 별사탕을 주었을 때 색에 따라 다른 맛을 느꼈다. 미세한 양이 첨가된 레몬향과 착색료, 설탕 뿐이었는데 말이다. 저자는



색은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데, 미각은 다른 감각에 비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노 제공>



"분홍색은 딸기맛, 노랑색은 레몬맛, 주황색은 오렌지맛, 보라색은 포도맛, 흰색은 사과맛"이 나도록 느끼게 한다고 봤다. 색과 맛의 별사탕이지만 색에 대한 이미지가 맛을 느끼게 했을 수도 있다.

저자는 "색체는 직감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우리 일상의 많은 판단의 순간에 영향을 주며 그 바탕에

는 평상시의 다양한 경험에서 축적된 색채 정보가 있다"며 "책을 통해 우리가 미처 몰랐던 '맛의 평가'와 시각, 그리고 색에 대한 비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바란다"고 언급한다.

<지노·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여기 살아 있는 것들을 위하여

배리 로페즈 지음

뉴욕 타임스 선정 2022년 올해의 책, 출간 즉시 아마존 1위를 기록했던 배리 로페즈의 '여기 살아 있는 것들을 위하여'. 작가는 지난 1986년 현장 조사를 거쳐 쓴 '북극을 꿈꾸다'로 미국도 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55년이 넘는 기간 무려 80여 개 나라를 여행하면서 20권이 넘는 책을 펴냈지만 2020년 75세 나이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이번에 출간된 '여기 살아 있는 것들을 위하여'는 작가 사후에 나온 마지막 에세이 모음집이다. 생전 작가가 다녔던 장소들과 실천했던 사랑의 정신을 담담하게 풀어낸 책이다. 특히 출간되기 이전부터 영 어권 문학잡지에서 기대작이라는 평을 받았으며 주요 매체에 1위에 올라 주목을 받았다.

많은 독자들이 배리 로페즈에게 사랑과 존경을 보내는 것은 인간과 자연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다. 작가는 단 한 번도 자연과 인간을 분리해서 생각한 적이 없다. 인간과 대지는 연결돼 있으며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 자연현상에 관심을 기울였다.

역사가이자 비평가인 리베카 솔닛은 자연과 글을 대하는 로페즈에 대해 이렇게 평한다. "그의 에세이는 나를 내 바깥으로 데려가는 창이면서 다시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며, 그렇기에 비행은 떠남인 동시에 귀환이다."

책에는 작가가 뉴욕, 캘리포니아에서 보낸 어린 시절 이야기를 비롯해 탐험의 이야기, 지구의 특별한 장소를 방문했던 여행지 등에 대한 단상은 물론 그 가운데서 작가의 명상에 대한 시간 등이 기록돼 있다.

한편의 회고록인 동시에 탐험에 대한 요약서이기도 하다. 자연과 풍경 나아가 장소와 사랑에 대한 작가의 깊은 시선은 오랜 여운을 준다.

<북하우스·1만9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연인 대본집 1~3

황진영 지음

"내 이 달빛에 대고 맹세하지. 그대가 어디 있던 내 반드시 그댈 만나러 가리다" "들리는가? 이 소리... 꽃소리..." "정말 미군..."



드라마가 끝나고 한참이 지나도 배우들의 대사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작품들이 있다. OST가 흘러나오면 아직도 드라마를 보고 있는 듯 장면이 떠오르고 배우들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눈앞에 펼쳐져 듯 유독 긴 여운이 남는다. 지난 11월 종영한 MBC 드라마 '연인'도 그 중 하나다.

매회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2023년을 뜨겁게 달궜던 화제의 드라마 '몹시 그리워하고 사랑한, 연인'의 작가판 무삭제 대본집이 출간됐다.

'연인'은 '역적:백성을 훔친 도적'으로 휴먼 사극의 새로운 지평을 연 황진영 작가의 세 번째 사극 대작이다. 단순한 로맨스 스토리를 넘어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불안했던 시대, 갖은 고초를 겪으며 희망과 사랑을 지켜나가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으며 웰메이드 드라마로 자리매김했다.

총 21부작이라는 긴 호흡을 담아낸 '연인' 대본집은 세 권으로 나누어 제작됐다. 오타와 비문을 수정한 외에, 촬영을 위해 제공한 대본대로 수록했으며, 제작진에게 제공하지 않았던 18부의 한 씬은 드라마 전체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씬이라는 점에서 대본집을 통해 추가했다.

글로 만나는 '연인'에는 팬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작가의 명대사를 비롯해 작품의 탄생부터 끝까지 제작 소회를 담은 작가의 말과 감독의 말, 작가 인터뷰, 작가의 완벽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탄생한 인물들의 특징과 대사, 지문이 담겨 사극 대본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김영사·각 권 2만3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말의 속도가 우리의 연애에 미친 영향

명학수 지음

대학생 커플 '나'와 '영주'는 경마장에 갈 때마다 '이기는 말'만 골랐다. 다음 날, 그다음 날도 마찬가지. 두 사람은 거듭되는 기적을 마주하며 행복에 겨워했다.

그러던 두 사람의 사랑도 결국 끝이 났다. 시간이 흘러 우연히 마주친 둘은 그날을 회상하다가 갑작스레 영주가 비밀 하나를 털어놓는다. 사실 혼자 갈 때마다 '지는 말'만 골랐었다는 것. 영주는 이기는 말만 골랐던 것이 "우리의 초능력"이었다는 쓰린 말을 끝으로 발견음을 읊었다.

201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작품활동을 시작한 명학수 소설가가 첫 소설집 '말의 속도가 우리의 연애에 미친 영향'을 펴냈다. 소설집 제목과 동명인 표제작을 비롯해 '호수', '은하', 'dmsw', '미친개의 처분에 관한 보고서' 등 여덟 편의 단편을 수록했다.

작품들은 소설적 허구와 사실을 넘나들면서 세계의 단면을 날카롭게 포착한다. '말의 속도가 우리의 연애에 미친 영향'에서 거듭되던 새내기 연인들의 행운은 반쯤 '허구'다. 그 이전에는 '팽'의 아픔을 모두 짊어지고 있던 영주가 있었다. 두 사람이 결별한 이유는 짐작컨대 말(언어)의 차이 때문인 것 같다.

'미친개의 처분에 관한 보고서'도 마찬가지. 소설은 햇빛으로 32단지라는 가상의 지역을 배경으로 인간의 파괴성에 대해 흡입력 있게 이야기한다. 또 'dmsw'에서 고등학생 딸인 주인공 '은지'가 자살하고, 그 뒤 밝혀지는 임신의 비밀 등도 허구와 사실을 교묘하게 넘나들며 읽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시적인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서 나는 할 말을 잃은 채 그저 미소만 지었다." 그러면서도 책은 천연한 문장들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담아냈다. 사랑에 임하는(혹은 임하려는) 현대의 연인들에게 그 적절한 '자세'를 조언하는 것처럼 다가온다.

<창비·1만6천800원>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